



9 · 11사태와 미국의 한반도 정책

9/11 and the U.S. Approach to the Korean Peninsula

Thomas C. Hubbard

주한 미국대사

2002. 11. 22.

필자 약력

Thomas C. Hubbard

現 주한 미국대사.

Alabama대 추(1965). 駐말레이시아, 駐필리핀 미국 부대사 및 국무부 아태담당 부차관보 등 역임.

9 · 11사태와 미국의 한반도 정책*

Thomas C. Hubbard

우선 오늘의 주제인 “9 · 11사태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달초에 있었던 미국 국무부 제임스 켈리(James Kelly) 동아시아담당 차관보의 평양방문에서 드러난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해 알고 싶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켈리 차관보는 북한이 수년 동안 핵무기용 우라늄을 농축하는 비밀 프로그램을 수행해왔다는 정보를 북한 당국자들에게 제시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1994년 제네바 합의사항,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협정 및 남북한 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한 것이다. 북한은 이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제네바 합의사항이 무효화 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이는 물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우리는 이러한 것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지역내의 모든 당사국들은 이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평화적인 국가들은 모두가 북한이 핵무장하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켈리 차관보의 평양방문 중, 미국은 북한과 교류를 맺고(동맹국과 우방국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바랐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실천적 단계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는 대량살상무기 개발계획, 탄도미사일의 개발 및 수출, 한반도에 대한 위협적인 군사자세, 테러지원,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북한이 극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최근 수 개월동안 북한이 남북한 관계를 실제 진척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몇 가지 조치를 취한 것을 보아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최근에 드러난 사실들은 북한이 미국과 진지하게 공동으로 노력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대북관계를 진척시키고자 한다면, 미국에게 이 새로운 북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은 신속하고 가시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최우선적인 관심사항이다.

오늘 본인의 발표 주제는 9 · 11테러 이후에 미국인들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이다. 과연 어떻게 변했는가?

* 이 글은 2002년 10월 22일 개최된 특별강연회의 녹취내용을 번역 · 정리한 것임.

본인은 그것이 지난 5월 파워(Collin Powell) 미국 국무장관이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에서 가진 연설에 잘 나타나있다고 생각한다. 즉, “만약 테러와의 전쟁을 비롯한 21세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난관의 복합성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단순한 흑백논리의 시대였던 냉전시대를 그리워한다면, 북한은 여러분들에 대해 예기치 못한 사태를 일으킬 것이다. 위험하고 그릇된 북한의 정책은 북한 주민들을 점점 더 기아와 압제의 구덩이로 몰아가고 있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파워 장관은, 북한의 통치자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했으며 얼마 남지않은 자원을 대규모의 공격적 군사능력을 유지하는데 낭비했다고 하였다. 북한은 굶주리고 피폐한 주민을 위한 식량개발에 힘쓰는 대신,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다.

북한은 9·11사태 이후 크게 낮아진 미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허용정도를 시험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 합동연설에서 “미국은 테러분자와,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거나 운반하는 물질, 기술 및 전문가를 지원하는 테러국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에 대해서는 미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9·11사태의 결과로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대북한 접근방식에서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특히 테러조직이 미국 및 우방국들에 대해 이와 같은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비추어 그러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전통적 군사자세를 축소해 나가기 바란다고 언급해왔다. 그러나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군대로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북한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잘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은 한국에 막대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며, 이 부분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번영과 성공이 결정될 것이다. 또한 이는 한·미 간의 공동 안보태세 및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도 좌우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원한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도 금년 2월 도라산역에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워싱턴에서는 남북한의 당사자들이 한반도 문제를 가장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을 본인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 긍정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고자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한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도록 할 필요성을 포함한, 한·미 간의 공동목표 속에서 더욱 굳건해진다. 미국은 여전히 남북한 간의 대화를 한반도에 대한 긴장완화와 지속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한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미국은 평화적인 협상과 협력의 새로운 시대로 신속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북한의 결정을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문제 즉 핵개발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사일 확산문제, 전통적 군사태도, 그리고 인권문제 등을 즉시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까지 본인은 북한과 관련하여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북한 해군이 비도발적 공격으로 한국 해군함정을 격침시킨 지난 6월 28일의 서해교전 사태 이후, 북한은 일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치들의 범위와 속도는 고무적인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안보에 대한 북한의 그릇되고 위협적인 태도와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지난 6월 이후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개혁을 대폭 추진하는 한편, 한국 및 일본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마침내 북한은 한국과 동·서해안 철도를 연결하고 금강산까지 육로를 개방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 철도는 계획단계에 있는 개성산업단지를 본 궤도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산업단지는 수년 내로 수십억 달러에 상당하는 한국의 투자를 유치하여 수만 명의 북한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실무 및 장관급 대화 재개, 북한선수단의 부산아시안게임 참가, 이산가족 상봉 등과는 별도로, 수년 동안 북한이 꺼려했던 DMZ의 양측 군사령관을 연결하는 직통전화도 현재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크지는 않지만, 긍정적이며 잠재력이 있는 중요한 수순들이다.

물론, 우리는 지난 9월 준이치로 고이즈미(Junichiro Koizumi) 일본 수상의 평양방문과, 여기에 상응해서 북한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12명의 일본인을 납치했고 그들 대부분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김정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극적인 광경도 목격했다.

북한 내부의 변화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는 북한이 폐쇄적이고 국유화된 경제에서 벗어나는 변화는 무엇이든 좋은 일이라고 해야겠지만, 이와 같은 독특한 개혁이 성공할 것인지는 매우 불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금년 7월에 북한이 발표한 전격적인 개혁조치들은 북한 주민 모두의 생활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북한은 갑자기 개혁을 결정하여, 북한의 상품 및 식량 배급체제를 대폭 축소하여 실질적인 시장분배체제로 전환시켰다.

기업쪽에 대해서는, 경영자들 스스로가 기업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국가보조금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개혁의 성공이라는 큰 도박은 북한의 신속한 해외자본 유치에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태도와 특히 비밀리에 숨겨서 핵무기 개발을 해온 것이 드러난 것으로 볼 때, 앞서 말한 결론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들은 무리할 정도로 빠르게 발표되었고, 내용 또한 그러하다. 이것이 북한의 개혁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정책들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동유럽에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 조치들이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반영하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 이 조치들은 경제가 나아지고, 생필품을 생산하고, 외부세계로부터의 원조와 자본을 유치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과 가족들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절박하게 시간에 쫓기고 있음을 반영하는지도 모른다.

미국은 북한이 외부세계와 진지한 관계를 맺는 결단을 내리길 바라며, 북한주민의 복지가 개선되기를 기원한다. 우리가 9·11사태로부터 배운 교훈 중 하나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북한을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판단을 내릴 때에는, 이 모든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서 평화적이고 의미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및 우방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질 의 · 응 답

[질 문]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우선 핵무기 개발을 포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를 반대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측이 먼저 대화에 응한 연후에 무기를 감축 해야 한다고 한다. 만약 양측이 이러한 자세를 취한다면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 북한이 진정으로 미국 및 EU와 대화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답 변] 실제로 미국은 뉴욕과 제네바에서 북한과 처음 협상을 시작한 1993년 이후부터 대화를 계속 추진해왔다. 당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리는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1993년에 북한은 자국 핵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에 대한 IAEA의 사찰을 허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은 전 세계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용 재처리 물질을 축적해왔는지를 확인하거나 발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우리는 곧 북한과의 대화에 착수했다. 본인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휘하는 로버트 갈루치(Robert

Gallucci) 대사의 차석 대표였다. 북한과의 협상은 다양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이 걸린 끝에 마침내 제네바 합의사항을 이루어 냈다. 이는 대화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종식을 공동 추진하는 한 방식이었으며, 북·미 간의 정치·경제관계 개선으로 갈 수 있는 과정이기도 했다.

현재 북한은 훨씬 보일 정도로 분명하게 제네바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합의사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화를 통한 대북 접근방식의 근간이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핵 문제에 관한 북한의 과거 행적 뿐 아니라 변칙적인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신뢰할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확신이 거의 없는 것이다.

미국은 이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 바란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 유럽과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중국 및 러시아와도 협의해 왔다. 미국은 우방과 동맹국, 이해당사국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외교적 노력이 새로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이 바라는 점은 이를 기반으로 어느 단계에서 대화재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은, 미국이 연관되어 있는 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인 관심을 쏟는 것이 다음 단계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북한은 진정으로 미국 및 EU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본다. 북한 자신은 대화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은 그 동안 미국과 이루어온 대화의 근간을 파괴했다. 본인의 견해로는, 향후 적절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순을 밟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달려 있다고 여겨진다.

[질 문] 이라크에 대해서처럼 북한의 정권교체에 관한 논의는 없었는가? 김정일 위원장과 그 지지세력들이 러시아나 중국, 또는 다른 나라로 안전하게 망명할 수 있겠는가?

[답 변] 지난 며칠동안 미국 행정부의 여러 대변인들은 이라크와 북한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논평하였다. 미국은 북한문제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원한다고 반복해서 언급했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하지만 이라크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국 행정부의 대변인들은 미국이 우려하는 이 두 나라들에 대한 접근방식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해왔다.

북한과 관련하여 크게 다른 점은 주변국들이다. 한반도 주변지역에는 모든 북한문제의 해결에 큰 이해관계를 갖는 아주 가까운 미국의 우방과 동맹국들이 있다. 한국은 그들 중 최우선적이다. 미국은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미국의 모든 협력상대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공감대를 다시 형성할 계획이다.

[질 문] 귀하는 제네바 합의사항이 파기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잘못된 점은 무엇이며, 제네바 합의사항의 파기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제네바 합의사항이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답 변] 파월 장관은 일요일 아침에 여러 방송의 대담프로에서 제네바 합의사항에 대한 문제점들을 비교적 폭넓게 제기하면서, 북한측이 미국에 대해 제네바 합의사항이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통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쌍방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어느 일방이 그 합의가 파기되어 무효화 되었다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일방이 이를 달리 말하기는 다소 어려운 일이다.

진정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이 사용할 접근방식은 어떤 것인가? 향후 미국의 선택사항 중 하나는 북한이 변칙적인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고,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여타 행위들을 중단하기 위한 신속하고 가시적인 단계를 취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은 공이 북한측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향후 우리가 생산적인 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질 문] 제네바 합의사항의 한 부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답 변]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아시다시피 미국만 KEDO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이 KEDO 집행위원회 위원국이며, 다른 나라들도 폭넓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KEDO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KEDO만이 결정할 수 있다.

[질 문]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이라크에 대한 것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만, 소위 “강경주의자” 들이 미국 행정부 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하여 점점 더 대이라크와 같은 정책이 되지는 않겠는가?

[답 변] 부시 행정부 초기에는 이에 관해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부시 행정부에 참여한 인사들 중 일부는 제네바 합의 및 북한과의 교류에 반대한 경력이 있다. 이러한 반대가 있었던 시기는 그들이 부시 행정부에 참여하기 전인 클린턴 행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시 행정부에는 제네바 합의사항이 이행될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바와 같이, 미국의 정책은 북한측이 이행하는 한 제네바 합의사항을 따르겠다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목적이 핵무기 생산 뿐인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변칙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북한이 인정한 상태라는 것이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사항이 무효화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워싱턴 내에서 더 이상의 근본적인 논쟁은 없으며, 우리 모두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합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을 새롭게 생각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통상적으로 해온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효과가 없다.

하지만 본인은 워싱턴 내에서 대통령의 견해와 달리 하는 의견을 듣지 못했다. 미국은 북한문제를 평화적으로 추진하기 원하며,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할 의사가 없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견해가 없다.

본인은 워싱턴 내의 모든 분야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하는 부분(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과, KEDO 내의 협력파트너인 중국 및 러시아 같은 나라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큰 것으로 들었다. 미국은 협력상대국 및 우방, 그리고 동맹국들과 조화를 이루는 외교적 자원을 동원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되고 이 세계에서 북한의 위치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북한에 설득시킬 것이다.

[질문] “고백외교(confessional diplomacy)”라는 말은 국민대학교의 윤영오 정치대학원장이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북한측은 일본인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핵무기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그 “고백외교”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외교의 이면에 있는 실제적인 의도와 동기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미국 행정부가 북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답변] 최근 북한은 놀랄만한 일들을 몇 가지 인정했다. 본인은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김정일 위원장이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납치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고,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는 단계를 밟았다. 하지만 특히 피납자들 중 상당수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마 그 단계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일본이 실망을 했다.

그러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경우, 이에 대한 인정은 통상의 고백처럼 뉘우치는 방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상당히 호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으로 들렸다. 이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북한은 정권유지, 안보, 경제적 성공, 식량 등 필요한 것을 모두 얻고자 한다. 본인은 이 모든 것들이 최근 수개월동안 북한으로 하여금 여러 나라들과 접촉하도록 해왔다고 생각한다.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인정한 배경에는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분명히 있다.

만약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세계로 하여금 북한에 더 많은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 북한을 현재의 난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으로 여긴다면, 북한은 심각한 실수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정책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반드시 설득해야 하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 중 하나인 까닭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평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선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없으며 외교적 수단에 의존하고자 한다. 조화로운 외교적 수단은 미국의 동맹국 및 다른 이해당사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더 밝은 미래가 있다는 점에 대해

미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만, 먼저 북한은 위험한 무기개발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질문]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인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 켈리 차관보의 증거제시로 인해, 북한측은 이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단순히 그들이 스스로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인가?

[답변] 정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따라서 이에 관해 깊이 다루지 않겠다. 그러나 애초에, 켈리 차관보는 회담 첫날 핵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북한측에 제시했다. 그리고 둘째 날, 북한 외무부 강석주 부부장은 켈리 차관보를 다시 만나 그에게 재차 거론할 기회를 주지않고 곧바로, 단호하고 차분하며 신중한 어조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미 준비된 발표문을 읽어 나갔다

[질문] 귀하는 북한이 이와 같은 핵 프로그램을 예상보다 빨리 인정하였다고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귀하가 예상했던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또 귀하의 견해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사안들을 미국과 한국 중 어느 나라에서 발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미국이 켈리 차관보의 방북 직후에 곧바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사태의 심각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은 이 문제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해결하기 바랬다. 이 문제가 공개되어 논쟁이 확대되기 전에 워싱턴은 이 문제를 자세하게 검토하여 동맹국, 특히 한국 및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할 시간이 필요했다.

종종 그렇듯이 이 문제도 누설되었다. 워싱턴에서 누설된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발표하게 되었다. 하지만 본인은 켈리 차관보가 방북 직후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 정부에 대해 방북결과를 숨김없이 설명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후 켈리 차관보는 동경을 방문하여 같은 내용의 설명을 했다. 그리고 미국은 몇몇 주요국 정부에 대해서도 방북결과를 설명하는 조치를 취했다.

덧붙여 말한다면, 일본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하기 전에도 일본 정부에 대해 방북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이 핵 개발프로그램을 인정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의 지도층도 최근의 남북한 간의 대화가 있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미국은 남북한 간에 진행되고 있는 대화의 중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미국은 남북한 간의 대화와 마찬가지로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미국은 실제로 이 문제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문제가 공개된다는 것은 아마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 문제를 누가 발표하는가와 관련하여, 미국의 일반적인 원칙은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이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로서, 미·북한 관료들 간의 회담결과가 실제로 공개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워싱턴에서 먼저 발표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질문]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인정함으로써 인해 소위 “햇볕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 이 점에 대한 미국의 생각은 무엇인가? 귀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미국은 처음부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해왔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 간을 연결하는 가교를 구축하여, 화해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한국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증진을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해 지지한다. 본인은 “햇볕정책”이 전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질문] 효율적인 북한과의 협상재개 시점은 언제라고 보는가? 만약 협상재개가 실패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하겠는가?

[답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워싱턴 내에서나 동맹국들과의 협의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 우리는 항상 북한정권에 대한 시각과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상당한 양의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식량지원은 정치적 목표나 상황과 연계된 것이 아니다.

미국은 KEDO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그 프로그램들을 어느 정도까지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았다. 미국과 KEDO 참여국들 간에 공통된 의견합의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인은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약간의 반미정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모두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러한 반미감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답변] 미국도 물론 반미주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얼마 전에 본인이 한국인 아버지로 들었던 말과 같은 것들이다. 그 아버지는 태어나기는 실제로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한국 국적을 가진 아들 둘이 있다고 했다. 현재 그 중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생인데 두 아들 모두가 미국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본인에게 물었다. 본인은

그 아버지에게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데 본인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되묻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우리는 특히 젊은 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반미감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감정을 성인이 되어서도 지닐 것이다. 또 우리는 일부 격렬한 반미감정 표현에 대해서 특히 우려하고 있다. 운동권 학생들이 담장을 타고 올라가 우리 건물 옥상에 있는 국기에 불을 지르고자 할 때에는 운동권 학생이나 경찰 모두가 부상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사실상 폭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미군 병사를 약 3시간 동안 납치하여 대학 캠퍼스로 데려가 군중들 앞에서 시위를 할 때, 누군가가 부상을 당하게 될까 걱정스럽다. 시위대가 미군기지에 화염병을 던질 때에도 걱정스럽다. 본인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 우려한다.

앞서 언급했던 아버지에게 대한 대답은, 미국과 긴밀한 유대관계 및 군사적 동맹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한국에게 이익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것이 한국에게 이익이라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설득시켜야 한다. 어느 정도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아마 이러한 것은 바로 안보와 번영을 위한 대가일 것이다.

본인은 최근에 정말 놀라운 설문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한국인의 반미감정 이유에 관한 그 설문조사는 놀랍게도 북한은 최하위로 내려가고 무역이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다시피 무역협상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사실 미국은 현재까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여전히 상당한 폭으로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최대 투자국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약 100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고, 작년에는 미국에 66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반면에 한국이 세계 전체에서 수입한 자동차는 불과 7천대였다.

본인은 왜 한국인들이 무역부문에서 미국의 압력을 받아 다소 손해를 본다고 여기는지 당혹스럽다. 한국은 아주 수출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본인은 미군주둔을 둘러싼 일부 마찰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 그럴 수 있다고 여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근본적으로 미군주둔의 가치를 믿고 있으며 이를 환영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한국 중심부에서 3만 7천명의 외국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항상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현존하는 한·미 동맹관계가 전혀 다른 체제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점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다. 1953년에는 중국도 적이었으며 러시아도 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속에서 우방이며 무역상대국이고 협력동반자이다. 1953년에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이러한 과정이 큰 진전을 이루었다. 현재 중국은 경제적 및 군사적 대국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2000년 6월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시작으로 하여, 한반도의 긴장이 눈에 띄게 완화된 상태이다.

한국도 많이 변했다.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민주주의를 이룩하였다. 한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으며, 학생들은 최루탄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거나 경찰로부터 과잉진압을 당할 걱정 없이 거리

로 나가 시위를 벌일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미국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본인이 외교관으로서 한 가지 말한다면, 그것이 국가 지도자들 간의 회담이라 할지라도, 정부관료 간의 회담만으로는 이러한 협력·동맹 관계를 어찌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의 일반 국민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가능한 한 좋은 행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항상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인들도 매년 한국으로 들어오는 3만 7천명의 젊은 미군 병사들이 곧바로 한국사회의 중요한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일반 국민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본인은 일반 국민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더 자주 할애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이러한 관심사를 이루기 위한 우리 모두의 공동노력에서부터 다시 시작함으로써 이와 같은 관계에 접근해야 한다.

9/11 and the U.S. Approach to the Korean Peninsula*

Thomas C. Hubbard

Before I get to my assigned topic which is “9/11 and the U.S. Approach to the Korean Peninsula” I know you will want me to say something about the recent revelations abou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hich came out of the visit to Pyongyang earlier this month by our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ffairs James A. Kelly.

As you know, Mr. Kelly confronted North Korean officials with our knowledge that the DPRK for several years has had a secret program to enrich uranium for nuclear weapons in violation of its commitments under the 1994 Agreed Framework, the Nonproliferation Treaty (NPT), it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agreement, and the Joint North-South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ns admitted it was true and said that they considered the Agreed Framework nullified.

This was, of course, a very disturbing situation, and we must consider very carefully what it means for the future. Everyone in the region has a stake in this issue. No peaceful nation wants to see a nuclear-armed North Korea. Like South Korea, the U.S. government seeks a peaceful solution to the situation.

During Mr. Kelly's visit to Pyongyang, we had hoped to engage North Korea - based on consultation with our allies and friends - and to open a bold path toward improved relations. We were prepared to offer practical steps which could improve the lives of the North Korean people, provided the DPRK dramatically altered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development and export of ballistic missiles, its threatening military posture on the Peninsula, its support for terrorism, and its deplorable human rights record.

We've seen some actions taken by the DPRK in recent months which could have the potential to lead to real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but the recent revelations about the DPRK's nuclear program throw into doubt the sincerity of North Korea's intent to work with us. For the United States this new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is an overriding concern that must be

* This is the text of a speech given at the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on Thursday, October 22, 2002.

resolved swiftly and visibly if we are to move forward with the DPRK.

The topic of my speech today is 9/11 and how it has changed the way we Americans look at the Korean peninsula. So what has changed?

I think Secretary Powell, speaking of North Korea last May at the Asia Society, said it pretty well: "If the complexities of combating terrorism and other 21st century scourges make you pine for the simpler Cold War days, the black-and-white days, North Korea will snap you to your senses. North Korea's dangerously deluded policies drag its people further and further into a hell of deprivation and oppression."

And he went on to say that North Korea's rulers have strangled its economic development and squandered what few resources the country has left on maintaining a massive offensive military capacity. They grow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biological, chemical, and nuclear weapons -- instead of growing food for their starving and destitute people.

And here North Korea runs smack into our Post-9/11, much-lower-threshold of tolerance for security threats. President Bush said in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that, "we will deny terrorists and their state sponsors the materials, technology, and expertise to make and deliv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United States will not permit the world's most dangerous regimes to threaten us with the world's most destructive weapons."

And these concerns about WMD and missiles have taken on an even more central role in our approach to North Korea as a result of 9/11 and especially in the light of the possibility that a terrorist organization could use such weapons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We also have been saying for some time that we want the North to move to a less threatening conventional military posture toward the South. We can't see how that could be achieved by North Korean military armed with nuclear weapons.

We are well aware of the regional dimensions of the North Korean problem. You have the greatest stake, for skillful management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will determine South Korea's continued prosperity and success. It will also determine our shared U.S.-ROK security posture, stabil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peace and stabilit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ll say it again: We want to resolve our differences with North Korea peacefully. And

President Bush at Dora Station in February this year put it very plainly that we do not intend to attack North Korea.

I can say with confidence that Washington believes that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st be handled by Koreans themselves. That is why we have strongly supported President Kim Dae Jung's efforts to forge a positive dialogue with the North. This point is reinforced in that the ROK and the U.S. have shared goals with respect to the North, including the need to maintain peace and security in Korea and move the North toward resuming dialogue. We support Korean aspirations for peaceful unification of their nation. We continue to see inter-Korean dialogue as key to reducing tension, establish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best way to improve the lives of the North Korean people.

Time will tell us what Pyongyang's real intentions are. We would welcome a decision by the DPRK to move quickly into a new era of peaceful negotiation and cooperation but Pyongyang must decide to deal forthrightly with the issues of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its nuclear program first and foremost, its missile proliferation, conventional military posture, and human rights.

I have focused mainly on the negative so far with respect to North Korea but in fact, since the West Sea incident of June 28, when the North Korean Navy sank a South Korean naval vessel in an unprovoked attack, we've seen some positive actions by the North Koreans. The scope and the speed of those actions are encouraging, but as I said before,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m in light of what we now know about the DPRK's erratic and threatening behavior on security issues and what we have long known about its very poor record on human rights.

Since June the North Koreans have sought actively to invigorate their dialogues with both South Korea and Japan, while pursuing dramatic internal economic reform. North Korea seems finally ready to link its western and eastern railways with the South and to provide an overland route to Mount Geumgang. Linking the Western Railway could make the proposed Kaesong Industrial Zone a genuine prospect. Kaesong could quite plausibly attract several billion dollars worth of South Korean investment in a just few years and produce tens of thousands of jobs for North Koreans.

And aside from the resumption of working-level and ministerial talks,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athletes in the Busan Asian Games, another meeting of separated families, there is

now a military hotline linking commanders on both sides of the DMZ, something the North Koreans had been unwilling to discuss for years. These are small but positive, potentially important steps.

Of course, we also witnessed Japanese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s dramatic September visit to Pyongyang and Kim Jong-il's equally dramatic admission that North Korea had indeed kidnapped 12 Japanese citizens during the 1970s and 1980s and that most but not all of them were now dead.

The speed of internal changes has been rapid and unprecedented. Now, I guess we have to say that any change away from North Korea's closed, statist economy is a good thing, but it is far from clear that these particular reforms will succeed.

The sweeping reforms the North announced in July will affect the lives of every citizen of the DPRK. The DPRK suddenly decided to reform or to radically scale back its internal distribution system for goods and for food, and effectively substituted a market distribution mechanism.

At the enterprise level, businesses were told that they must cover their own costs and that state subsidies would be a thing of the past.

The big gamble is that the success of the reforms will depend on North Korea's success in attracting outside funds quickly. I'd say that is far from a foregone conclusion, given North Korea's unpredictable behavior and the revelations that it has secretly been working covertly on nuclear weapons, in particular.

North Korean economic reforms have unfolded extremely rapidly and they have an almost breathless quality about them. That does not mean that they will fail. But we have seen policies like this fail before in Eastern Europe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We don't know whether these economic measures reflect a real change of heart in Pyongyang. They may reflect the desperation of a regime that is running out of time to get its economy going, to produce goods which its people need to live, to attract capital investment and aid from the outside world, to give North Koreans incentives to work harder for a better life for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We hope that North Korea will decide to sincerely engage with the world. We wish the best for the North Korean people. One of the lessons we have learned from 9/11 is that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So we will judge North Korea by what it does, rather than by what it says.

As we judge, we will consult closely with our South Korean allies on seeking a peaceful yet purposeful path to resolve all these problems.

Thank you.

Questions & Answers

Q North Korea wants to have a dialogue and talk to the US. But the US insists that North Korea should give up nuclear development first. But North Koreans tells it the other way around, that we should talk first and then reduce weapons. If both sides take this sort of attitude, there will be no dialogue. What is your stance on this? Also, does North Korea have a genuine intent to hold a dialogue with the US and the EU?

A The US has, in effect, pursued a dialogue with North Korea since 1993 when we first sat down to the table in New York and Geneva. We were trying to work out the details following North Korea's announcement of its intention to withdraw from the non-proliferation treaty. You may recall, in 1993 North Korea refused to allow IAEA inspections of certain aspects of its nuclear program. North Korea effectively told the world we are not going to clarify and we are not going to tell you if we have accumulated fissile material for our nuclear weapons program.

We embarked on a dialogue. I was the deputy to Amb. Bob Gallucci who conducted those dialogues. I spent many days, weeks and months i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n a variety of places. We came up with the Agreed Framework. It was a way of pursuing, together, based on dialogue and mutual consideration, an end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t was a process that could have led toward improved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cross the board.

Now we see that North Korea has clearly and blatantly violated the Agreed Framework. It was the fundamental basis for our approaching North Korea through dialogue. As I said, we know about not only their previous activities in the nuclear area, but also about their covert nuclear program. We have very little basis for trust in North Korea. Very little basis

for confidence that dialogue will lead to a solution.

We want a peaceful solution to this problem. We have been consulting with our allies: Korea, Japan and Europe. We have also consulted with China and Russia. We do hope that concerted diplomatic effort based on cooperation among friends and allies and interested parties can succeed in persuading North Korea they must drop this new program. They must come to terms with all of their obliga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regard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 hope on that basis, at some point, dialogue can resume. At this point, we think an over-riding consideration in dealing with that issue is a prerequisite for further progress, as far as the US is concerned.

As for your second question, yes, the North Koreans say they want dialogue. But they have broken the basis on which the US-DPRK dialogue has taken place. I think it is up to them now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make future dialogue appropriate and productive.

Q Why do we not hear any US discussion of regime change in the DPRK, just like we do regarding Iraq? Can Kim Jongil and his henchmen be offered a safe exile in Russia, China or some other place?

A Various administration spokesmen over the last several days have made a lot of statements about the differences in the Iraq situation and the North Korean situation. We have said repeatedly we want a peaceful solution of our North Korean issues. We have no intention to attack North Korea. We have not said that about Iraq. Our spokesmen have made very clear we do not have a cookie cutter approach to these nations we are concerned about.

One very important difference with regards to North Korea are the neighbors. In this part of the world we have a number of very close friends and allies who have a deep stake in the resolution of all North Korea issues. South Korea is first and foremost among them. We plan to consult very closely and re-shape a consensus with all of our partners before deciding how to proceed from here.

Q Do you think the Geneva Agreement is dead? What went wrong? What lessons were learned from the breakdown of the Geneva Agreement? If a new agreement is to replace it, what must it include?

A US Secretary of State Powell addressed the question of the Geneva Accords, or the Agreed Framework, rather extensively Sunday morning on various talk shows. He pointed out that

the North Koreans indicated to us that they considered the Agreed Framework to be nullified. When you have an agreement involving two parties, and one side says that it is null and void, it is a bit difficult for the other party to differ from that.

The real question is where do we go from here. What kind of approach do we use in the future? One element of our future options has to begin with North Korea taking quick and visible steps to end this covert program of uranium enrichment, and to end its other activities in nuclear weapon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 think it falls very much in the North Korean court. They can themselves create the conditions that will allow us to move ahead to a productive dialogue in the future.

Q Is there a future for KEDO as part of the Geneva Accord?

A We have not made any decisions yet since, as you know, the US is not the only country in KEDO. The EU, Japan and South Korea are also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There are also more broad members. Only KEDO can decide where to go from here.

Q The US government is saying that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is different from US policy towards Iraq. But it seems that the so-called “hard liners” are gaining strength in the US administration. Is the US government’s policy stance toward North Korea going to change and become more like US policy toward Iraq?

A In the early period of the Bush Administration there were, indeed, some differences within the US government. Some of the people who came in to the Bush Administration had a record of opposing the Geneva Accords and opposing engagement with North Korea. This opposition of theirs dates back to the Clinton Administration, before they came to office. Others within the Bush Administration wanted to give the Agreed Framework a chance to work.

Our policy, as enunciated by the president, was that we would abide by the Agreed Framework as long as the North Koreans did. Now, we have a situation in which North Korea has admitted to the covert pursuit of a uranium enrichment program that can only be aimed at the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They have said that the Agreed Framework is nullified. There is no longer any basic dispute in Washington over the facts. I think we all agree. North Korea has violated this accord. That means we have to consider new approaches to North Korea. Business as usual is no longer valid.

However, I don't hear any dissent in Washington from the president's view. We want to

pursue the North Korean problem peacefully. We have no intention of taking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There is no dissent from that point.

What I hear from all sides in Washington is deep concern and interest in proceeding prudently, carefully-given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and in very close consultation with our partners in KEDO and with other interested countries, like China and Russia. We will mobilize the diplomatic resources that we have in concert with our partners, friends and allies. We will persuade North Korea that they are wrong if they think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is the way to build a better life for their people or a better place for North Korea in the world community.

Q “Confessional Diplomacy” is a phrase coined by Prof. Yeongoh Yoon, the dean of Kookmin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political science. The North Koreans admitted to kidnapping Japanese. They admitted their nuclear weapons. So this seems to be very “confessional diplomacy”. What is your view on the real intention and motivation behind this kind of diplomacy?

What does the US government mean when they say that the North Korean issue will be dealt with “peacefully”? What exactly does it mean, to deal with North Koreans in a peaceful way?

A North Korea has made some surprising admissions lately. I would note that with regard to the abductees, Kim Jongil acknowledged the problem. He admitted the kidnappings. He apologized and took steps to rectify the situation. Perhaps those steps have not been adequate, particularly given that so many of them are dead. There was disappointment in Japan.

But in the case of this uranium enrichment program, the admission was made not in a penitent way, as one might expect from a confessional. It was made in a much more belligerent way. There were no apologies. In fact, we heard a determination to proceed with the program. It's a very different kind of circumstances.

What are they trying to gain? Everything that North Korea needs: regime survivability, security, economic success, food. I think all of this has been driving North Korea's outreach to various countries in recent months. This must lie somewhere behind this admission of this uranium enrichment program.

If they think this kind of program will make the world more forthcoming in trying to help North Korea out of the difficult situation it's in, I think they are severely mistaken. That's why one of the aims of our diplomacy has to be to persuade them that that is true.

What do we mean by peaceful? First, as the president said, we are not planning to invade North Korea. We want to rely on diplomatic instruments. Hopefully, concerted diplomatic instruments will be developed in consultation with our alli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We hope to be able to persuade the North Koreans that a brighter future does lie out there, but first they have to take steps to end these dangerous weapons programs.

Q I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the process of the North Koreans' admittance of nuclear weapons development. Did the North Koreans admit it because Secretary Kelly provided them with evidence, and therefore had no other option but to admit? Or, did they just come out and say that they have this program?

A Of course, we do not talk about intelligence matters. I will not get deeply into that. But at the outset, Mr Kelly confronted the North Koreans on the first day of the talks with our knowledge of their program. On the second day, Kang Seokju, first vic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came back to him and without giving Mr Kelly a chance to speak again launched immediately into a prepared presentation in which they admitted they had this program in firm, but calm and measured tones.

Q In your speech, you briefly mentioned that this kind of revelation came out earlier than expected. What was the appropriate timing you expected?

Also, in your opinion, in this kind of matter, which country, the US or Korea, is in the right position to announce this kind of thing?

A Our purpose in not discussing this publicly immediately after the Kelly visit was, I think, obvious from the seriousness of the issue. We wished to deal with it carefully and prudently. We had hoped to have time for careful reflection in Washington, close and careful consultation with our allies around the world, particularly Korea and Japan, before having this known publicly and before engaging in a wider debate.

As so very often happens, it leaked. It leaked in Washington. We felt compelled to announce it. I would point out that immediately after his visit, Mr Kelly came to Seoul and briefed the Korean government very candidly. He went thereafter to Tokyo and did the same thing. We took steps to brief some of the main government players around the world.

I should add also that we had, as the Japanese have acknowledged, briefed the Japanese government before Prime Minister Koizumi's visit to North Korea. He was aware of the program, but not of the North Korean acknowledgement of it. South Korean government

leaders were also well aware of it before the latest round of interaction.

We have had no interest in stopping the dialogue that is ongoing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lso, we fully supported the Koizumi visit, as we continue to support North-South progress. We did not go public because we really wanted time for reflection. Perhaps it is inevitable that it would come out.

As to who should make the announcements, our general principle is that South Korea should be in the driver's seat, in the lead, in dealing with North Korea. We welcome that. In this particular case, it is the result of a meeting between a US official and a DPRK official where it was actually announced. So in a case like that, perhaps it was appropriate that the first announcement came out of Washington.

Q Because of this admission of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e so-called “sunshine policy” is really losing grounds for justification. Some people say Kim Daejung's policy helpe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hat is the US government's thoughts on this matter? Do you think President Kim's policy really helped the North to develop a nuclear weapon?

A We have supported President Kim's “sunshine policy” from the outset. We think his policy of trying to reduce tensions on the peninsula, to build bridges to North Korea, and to build up a basis for reconciliation has been the right policy for South Korea. We support all efforts in working toward a more peaceful situation on the peninsula. I have no negative comments at all to make about the “sunshine policy”.

Q What is the cost-effectiveness of the opening stages of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f it is not successful, could we sanction North Korea?

A As I said, we have made no decisions either in Washington or in consultation with our allies as where we go from here. We have always to some degree separated our views of the North Korean regime from our concern for the welfare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at is why we have provided very substantial amounts of food aid to North Korea on a humanitarian basis. These have not been linked to political objectives or the political situation.

We have ongoing programs related to KEDO. We make no decisions in Washington as to the degree to which they should continue. We have not come up with a common view with our partners in KEDO. I think I will not comment on that until a further time.

Q There seems to be a small anti-US sentiment, particularl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We are all concerned about it. Are you concerned about this? What can you do about this? How do you assess this anti-US feeling?

A We are, of course, concerned about anti-Americanism. We are concerned about comments like those I received from a Korean father not long ago. He said he had two children, both of whom were actually born in the US, but are now Korean citizens. One is in high school. The other is in college. This father told me that they both hate the US. What can I do, he asked. I was very tempted to say back to him that if you do not know what to do, I cannot help you very much.

We are concerned about sentiment like that, particularly on the part of young people. They will carry their sentiments with them into their adult lives. We are also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some of the recent violent manifestations of anti-US feeling. I worry when student activists leap over a wall and climb to the top of our building, trying to set fire to the flag. I worry that someone is going to get hurt, either the activists or the police.

I worry when something approaching a mob in effect kidnaps a US soldier for about three hours and takes him on campus and parades him in front of a rally. I am worried that someone is going to get hurt. I am worried when they throw Molotov cocktails onto our military bases. I am worried about all of this.

My answer to that father is that you, yourself, have to decide whether it is in Korea's interest to continue to have thi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US, to continue to have this military alliance with the US. If it is in Korea's interest, you have to persuade your children that some degree of inconvenience is inevitable. Some degree of friction is inevitable. Perhaps this is just the price of security and prosperity.

I read a poll recently that really surprised me. This survey suggested that, to my surprise, North Korea was way at the bottom as a reason for Koreans to be anti-US. Trade was at the top.

I know all of us have spent a little time with trade negotiations, and as you know a lot of friction gets generated from that. But the fact is: we are Korea's largest market by far. We are still the largest investor by a considerable margin. Korea runs a trade surplus with the US of about US\$ 10 billion per year. Korea exported 660'000 cars to the US last year. Korea imported only 7'000 from the entire world. It is baffling to me why Koreans feel somehow damaged and oppressed by the US in the trade field. You are doing very, very well, and will continue to do so.

I can understand, I believe, some of the frictions surrounding our military presence. I

think most Koreans fundamentally believe in that presence and welcome it. But it is not always pleasant to see 37'000 foreign troops in your midst. I think we have to recognize that our alliance now exists in a very different framework from when it was created in the 1950s.

The world has changed. In 1953 China was an enemy. Russia was an enemy. Now China and Russia are friends and trading partners and cooperators in the world. In 1953 Korea had not even begun to work out its issues with Japan. That process has gone a long way. Now China is a very large economic factor and becoming a larger military power. The Korean Peninsula has changed. Beginning with the president's visit to Pyongyang in June, 2000, there has been a palpable sense of relaxation of tension on the peninsula.

Korea has changed. You have democracy. This is a free and very open democracy. You have a free press. The students can go out and demonstrate without worrying about being flooded with tear gas and having their heads beaten up by the police.

It is a very different atmosphere here. We have to recognize that. Part of the answer to me, as a diplomat, is, I think, we are in an era where we cannot manage this relationship, this alliance, just in quiet meetings between government officials, or even at quiet meetings among leaders.

We have to deal better with the public. We have to do our best to have our people behave as well as possible while here. They are not always going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You cannot have 37'000 young US soldiers coming here every year and expect them to immediately fully understand some of the concepts that are so central to Korean society. We are trying to do that. We have to pay more attention to public affairs. I am trying to spend more time on public affairs and get out more often.

We have to approach this relationship with a genuine sense of our common interest, and working back from that a common effort by all of us to make it work
